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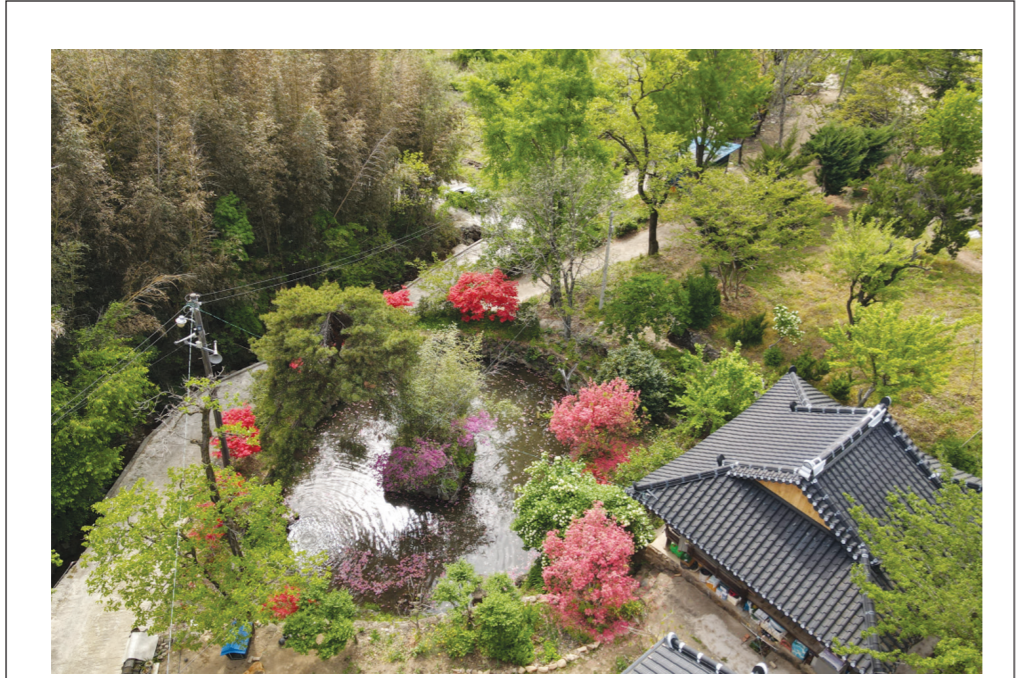
# 여수시, 해양수산부장관 방문 고수온·적조 현장 점검

## 월호동 인근 가두리양식장 해수온·양식장 상태 점검 “재해보험 가입·자율방제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라”

여수시는 5일 오전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이 여름철 고수온·적조 피해를 위해 가두리양식장을 방문, 현장점검에 나섰다. 현장점검에는 문금주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와 박현식 여수시부시장 등 비롯해 관계기관 공무원도 참석했다. 조 장관은 이날 월호동 인근 가두리양식장에서 해수온과 양식장 상태 등을 점검하고 어업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고수온·적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상황 발생 시 방제장비를 신속히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달 6일부터 가막만과 여자만 등에 ‘고수온 특보’가 한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피해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 6월 9일에는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여수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적조발생에 대비한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는 어장정화선 황토살포기 2대, 선박 50척, 드론 1대가 동원됐다. 6월 23일에는 여수수협 회의실에서 어업인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고수온과 적조에 대응한 행동요령 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적조 피해를 예방을 위한 방제장비도 충분히 확보한 상태다. 시는 산소공급기 376대, 액화산소용기 307대 등 방제장비 2,388대와 적조 구제물질인 황토 19,521톤을 확보하고, 어류양식장에 액화산소 충전·운반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과 합동으로 매일 수온을 측정해 어업인에게 문자로 상황을 전파하고 먹이공급 중단, 장비 가동 등 사전 관리에 나서고 있다. 박현식 여수시부시장은 “고수온, 적조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철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어업인들께서도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해 재해보험 가입과 자율방제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여수=기동취재본부



## ‘순천 송매정 원림’ 전라남도 기념물 지정 전라남도 기념물 제259호...정원문화 결정체로 역사적·경관적 가치 인정

순천시는 ‘순천 송매정 원림’이 전라남도 기념물 제259호로 지정 됐다고 최근 밝혔다. 송매정은 우산 안방준(牛山 安邦俊)이 1614년(광해군 6년) 소피(牛峯) 마을에 정착한 후 정자를 짓고 소나무 한 그루와 매화나무 여덟 그루를 심었던 곳에 후손 직우당 안창훈(職憂堂 安昌勳)이 1817년 선조의 유지를 받들어 다시 정자를 짓고 ‘외로운 소나무와 여덟 그루의 매화’라는 뜻의 송매정(松梅亭)편액을 달았다. 송매정은 정자 앞에 단을 쌓고 타원형 연못에 정사각형에 가까운 석가산을 조성

해 전형적인 우리나라 전통 연못과 조경 형식을 따랐다. 정자 건축을 포함한 주변 지역의 풍광과 공간성이 정원문화의 결정체로 역사적·경관적 가치를 인정받아 전라남도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순천시 관계자는 “문화유산과 유형유산 뿐만 아니라 자연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는 소중한 자연유산 또한 꾸준히 발굴하여,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 순천의 명성에 걸맞은 자연유산 보존관리 체계를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기자

## 광양시, ‘잇유 청춘 플로깅’ 참여 청년단체 모집

광양시는 지역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잇유 청춘 플로깅(With You 청춘 Plogging)’ 사업에 참여할 청년단체, 청년 소모임, 청년을 모집한다. ‘잇유 청춘 플로깅’ 사업은 광양시가 주최하고 광양시청청년회가 주관해 8~11월 운영되며, 주요 내용은 광양의 볼거리 광양구경(光陽九景) 플로깅 9회, 관광명소 플로깅 4회, 문화재 플로깅 등으로 운영된다.

또한 플로깅 외 ‘선사인 플로깅 토크콘서트’와 홍보영상 제작 등 다양한 홍보활동도 추진하며, SNS 등 각종 매체에 홍보함으로써 쓰레기 문제 인식을 확산해 단순 쓰레기 줍기 사업이 아닌 문화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인식 전환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연말에는 15회 플로깅 참여자 서명부에 기록된 소속단체, 소모임, 성명을 토대로 참여 횟수를 집계하고 최우수상 1단체, 우수상

2단체, 장려상 2단체, 최우수 플로거(Plogger) 1명을 시상해 청년 참여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환경보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플로깅 참여를 원하는 청년단체, 청년 소모임, 청년은 QR코드, 광양시청청년회 사무국으로 신청해야 하며 참여자에게는 1365 봉사활동 실적이 인정된다. 김재희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플로깅 사업을 통해 청년이 참여하는 환경정화 활동과 분리배출로 쾌적한 광양지역 환경을 조성하고, 생태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기동취재본부

## ‘우영우 팽나무’ 보성엔 천연기념물 ‘팽나무 숲’ 있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소개된 팽나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팽나무 마을 숲이 있는 ‘보성 전일리 팽나무 숲’이 주목받고 있다. 보성군 화천면 ‘보성 전일리 팽나무 숲’은 1987년 전라남도기념물 ‘보성 전일리 팽나무 줄나무’로 지정됐다가 2007년 천연기념물 제480호로 지정됐다.

마을앞 수로를 따라 팽나무 18그루와 푸조나무 1그루가 하나의 숲으로 천연기념물로 관리되고 있다. 팽나무 수령은 300~500년 정도이며, 높이 9~15m, 둘레는 1.2~4.9m에 달한다. 한 그루만 있어도 강한 인상을 주는 팽나무가 약 155m 길이의 개울둑을 따라 병풍처럼 마을을 감싸고 있다. 각 나무의 규모가



크고 모양이 아름다우며 주변의 지형과 산세에 잘 어울려 아름다운 경치를 자아내고 있다. 보성=김명순기자

## 고흥분청사기 도예강좌 개강

고흥군은 500년 고흥 분청문화의 전통을 잇고 도자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10기 고흥분청사기 도예강좌’를 지난 8월 4일에 개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10기 도예강좌는 지역주민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분청문화박물관 내 한옥다목적

체험관에서 16주에 걸쳐 진행된다. 강좌는 초급반(주간반), 초급반(야간반), 중급반, 물레반으로 구분되며, 기존 도예강좌를 3회 이상 수료한 수강생은 중급반, 나머지는 초급반으로 나누어 수준별 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의 내용은 고흥 분청사기의 이론 교육 및 7가지 기법을 활용한 생활자기 제작으로 ▲초급반은 고흥 분청사기의 기초이론 및 분청사기 기법을 활용한 실생활 용기 제작 ▲중급반은 고흥 분청사기의 심화이론 및 분청사기 기법을 응용한 분청사기 창작작품 제작 ▲물레반은 전기물레를 활용한 전문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분청사기를 만들어 볼 수 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내 삶이 행복한 광산

##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